

LH - 장애인고용공단, 착한 일자리 맞손

장년장애인 채용, 고령 입주민 맞춤형돌봄 서비스

신규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공사(LH)가 손을 잡고 장년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나서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진행될 장년 장애인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에 참여할 27명의 장애인을 최근 채용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총 30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에 지적 장애인 33명, 청각장애인 11명, 시각장애인 10명, 뇌병변 장애인 7명 등 총 87명의 장년장애인이 신청해 이중 27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우선 올해 12월 21일까지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지난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열린 장년장애인 ‘홀몸어르신 살피미’ 발대식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하게 된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은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내 거주 홀몸어르신 상시 안부전화 및 방문을 통한 말벗 등 살핌 서비스 ▲상담 시 접수된 의견 정리 및 어

르신별 특이사항 관리 ▲홀몸어르신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LH 내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홀몸어르신 현황 조사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인구 중 50대 이상 장년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구의 7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타 연령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3.5%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술 발달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증

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장년장애인의 신규 직무 개발과 접목한 사업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김민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차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년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발하고자 LH와 함께 추진한 사업”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인 김정복(63·가명)씨는 “오랜만에 다시 일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에 참석한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해양환경관리공단

‘바다가 미래다’ 주제로 펼쳐진 해양박람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 참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에서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공단은 보호대상해양생물 보호,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활

동을 펼쳤으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해양환경 전시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단에서 직접 개발·특허 등록된 자갈세척기 모형 시연을 통해 해양오염방지 전문기술을 소개하는 등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과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주총 거수기’ 국민연금이 달라졌어요

주총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반대율 2배... 목소리 높여

국민연금이 올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하여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이 2029건(79.2%), 반대가 524건(20.5%), 중립 또는 기권이 8건(0.3%)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결권 비율은 지난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비교할 때 올 1분기 반대율은 갑절에 달한다.

올 1~3월 반대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 순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이 내달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이 같은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투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

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일컫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를 계기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

aT, 눈높이 맞춤 사회적가치 창출 나서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 발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18일 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aT 센터에서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민간기업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aT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사회적가치 창출 기본계획, 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aT는 지난 3월 사회적가치창출 업



aT 사회적가치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지난 15일 1차 자문회의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aT

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사회적가치창출부’를 신설했으며 4월에는 노사합동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한마음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사회적가치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회적가치창출 역량분석, 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가치 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부서별 사업방향을 공사전체와 일치시킬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우정사업본부

워킹맘 우대 든든적금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워킹맘을 우대하는 ‘우체국 마미드든적금’을 18일 출시한다.

‘우체국 마미드든적금’은 실명의 개인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월 1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가능하며, 1인 1계좌에 한해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3년 만기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연 2.2%이며, 일정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받아 최고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외에 부가서비스로 이 적금에 가입하고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면 전국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우체국쇼핑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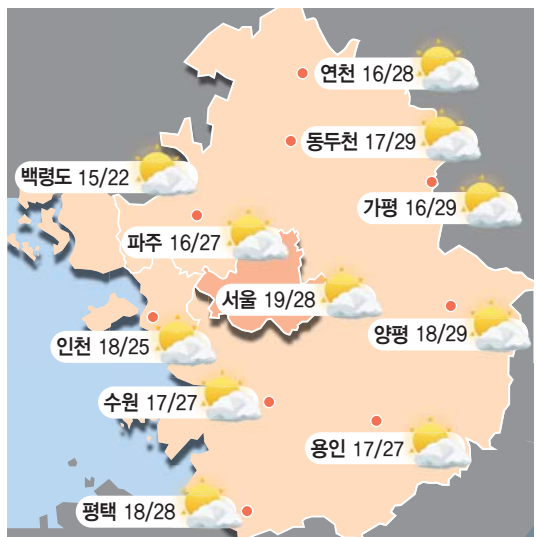
해돋이 / 05:11 | 해질 / 19:56

6월 19일
음력 : 5월 6일

수도권 날씨

28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